

저출산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및 심리적 이해

이 경 숙 정 석 진 박 진 아 신 의 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세원영유아아동상담센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본 연구는 여대생 286명을 대상으로 출산의향 자녀수를 알아보았다. 또한 출산의향 자녀수와 심리적 변인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저출산 현상 원인과 대책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여대생의 출산의향 자녀수는 무자녀가 5.9%, 1명이 8.4%, 2명이 57.3%, 3명 이상이 27.6%로 나타났다. 여대생을 대상으로 출산의향 자녀수와 심리적 변인(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형제와의 관계 만족도, 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 외로움, 자존감)과의 관련을 살펴보면, 무자녀나 1명을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대생은 자녀를 2명 이상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대생에 비해, 어머니, 형제와의 관계에 대해 불만족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낮고, 더 불안하고 우울하며, 외로움을 더 많이 느꼈다. 그리고 무자녀나 1명을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대생은 2명 이상을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대생에 비해 부모와 불안정 애착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심리적 변인이 출산의향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변인이 출산의향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이 어머니, 형제와의 관계 경험이 좋고 정신건강 상태가 안정적일수록 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게 되어 출산의향 자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한편, 여대생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감(47.2%), 본인의 취업과 자기발전(11.5%), 여성의 출산 및 육아담당 책임에 대한 부담감(9.1%) 순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녀 1인당 고정액수의 현금지원(19.9%), 저렴한 보육시설 서비스의 확대(15.7%), 기업체의 육아휴직 등 기업의 협조(14.3%),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14%)순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저출산, 여대생, 출산의향 자녀수, 심리적 특성, 저출산 의향

[†] 교신저자 : 신의진, 강남세브란스 병원 소아정신과, (135-72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612
E-mail : yjshin@yumc.yonsei.ac.kr

최근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5~49세의 가임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율은 1960년대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3년 2.1명, 1990년 1.59명, 2000년 1.47명, 2007년에는 1.26명으로 급격히 하락하였다. 이는 한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인구 대체율인 2.1명에 미치지 못하며, 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6명보다도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08). 출산 자녀수가 인구 대체율인 2명일 경우 현 사회가 인구구조를 유지하나 출산 자녀수가 1명이하일 경우 인구가 줄어든다고 본다(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2005).

저출산 현상의 지속은 인구 규모의 감소뿐 아니라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불균형 및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따라서 기존 인구 구조에 맞게 형성된 교육·의료·복지 서비스·노동 및 산업 체계의 부조화를 촉발시켜 사회 전체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안명옥, 2004),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잠재 성장을 저하, 연금부담의 증가, 이로 인한 국가 재정 악화,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최숙희, 김정우, 2005).

우리나라보다 먼저 저출산 현상을 경험한 대부분의 OECD국가와 국내에서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려는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안명옥, 2004;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2005; 최숙희 등, 2005; OECD, 2005).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OECD내에서 저출산 경향이 일반화되고 있는 가운데 OECD 국가 중 남유럽 국가, 독일어권 국가와 동유럽권 국가는 상대적 저출산 국가로 분류할 수 있고, 북유럽국가, 프랑스어권 국가, 영

미계 국가는 상대적 고출산 국가로 분류가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저출산 국가는 종교(카톨릭의 낙태금지), 정부정책(구 사회주의 시절 강력한 출산정책), 가족주의문화의 영향으로 과거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출산율이 유지되고 있었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정책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직장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1.1~1.3명 정도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고출산 국가는 양성평등의 생활화, 유연한 노동시장, 자녀 양육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이민 세대의 높은 출산율 등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1.6~2.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미비와 높은 교육비 부담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OECD국가 중 상대적 고출산 국가들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각종 세제 혜택, 관련 제도 변화, 사회 환경 재정비 등의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막대한 예산소요에 비해 효과가 불확실하고,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Andersson, 2002; Gauthier, 1996; Sleebos, 2003). 또한 국내에서도 정부에서 시행 중인 저출산 방지 정책이 출산여부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가구의 81.6%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이삼식, 유계숙, 박종서, 이성용, 조영태, 장보형, 2008). 이처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출산 현상을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만 초점을 둔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차원의 문제라기보다 출산을 결정짓는 개인을 둘러싼 심리적 요인들도 포괄하므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들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

력도 필요하다.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성인 기에는 다른 사람과 성숙한 사랑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부모역할을 수행하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Erikson, 1950). 예컨대, 애착이론에 근거해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개인이 자녀출산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애착이론에서는 생애 초기에 형성되는 부모와의 관계경험이 이후 인생전반에 걸쳐 성격, 심리적 건강과 대인관계에 대한 신념, 미래 일을 계획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Bowlby, 1973; Main, Kaplan, & Caasidy, 1985). 애착 유형에 따라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및 친밀도(Mickelson, Kessler, & Shaver, 1997), 성인기 대인관계(Collins & Read, 1990), 자녀와의 관계(Feeney & Collins, 2001)에서 다른 양상을 보였고, 자기존중감과 삶의 만족도(Amersden & Greenberg, 1987; Batholomew & Horowitz, 1991), 우울(Rosenstein & Horowitz, 1996), 불안(Amersden & Greenberg, 1987), 외로움(Heeth & Baum, 1984) 등 심리적 불편감에도 영향을 주었다. 즉,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사람들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친밀한 관계 형성을 편안하게 여기거나,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신뢰하기 어렵고 거부당할까 두려워하고 친밀한 상태를 불편하게 느끼며 자긍심이 낮다고 하였다(Collins & Read, 1990; Hazan & Shaver, 1987; Roberts, Gotlib, & Kassel, 1996). 즉, 건강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한 성인은 이후 자녀 출산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자신의 부모역할 및 자녀와의 관계에 대하여 긍정적이며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기대할 것이며, 불안정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

한 성인은 자녀 출산에 대하여 부정적이거나 거부적, 양가적, 회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부모와의 관계가 이후 가깝고 친밀한 관계인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생각을 갖게 할지에 영향을 미치고, 자녀출산여부와 출산자녀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와 자녀출산 여부간의 관계를 살펴본 국내·외 연구들은 많지 않다. 성인을 대상으로 출산하려는 동기와 심리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본 Gerson(1986)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여성은 인구학적 변인(사회경제적 상태, 종교)보다 자기에, 자존감, 부성애에 대한 기억 같은 심리적 변인들이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동기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Debra(2006)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불만족이거나 양가적이라고 보고한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자녀를 출산하지 않은 비율이 더 높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삼식, 김태현, 박수미, 오영희, 및 박효정(2006)에 의하면 부모자녀관계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이후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계획이 있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 부모역할을 하는 바람 등은 당시의 정신건강과 관련이 있다(이영호, 2007). 정신건강이란 정신적으로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일 뿐만 아니라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환경에 적응하며 원만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이자 정신적으로 성숙한 상태이다(이영호, 2007, 재인용). 개인이 정신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부정적으로 여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정신건강이 자녀출산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개인의 정신건강과 자녀출산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선행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정신건강 중 어떠한 요인을 선정하느냐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성인기 정신건강 문제 중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우울, 불안, 외로움,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로 하였다.

최근에는 개인이 결혼, 출산을 결정하고 직업을 갖는데 있어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감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김수연, 이은경, 1996). 삶의 만족도란 개인이 주관적으로 설정한 기준과 비교하여 자신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판단과정의 결과인데 그들이 생활 속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므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성장배경,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김수연, 이은경, 1996). 자녀의 존재, 자녀수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련성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는 일관되지 않는다. Glenn과 McLanahan(1981)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자녀의 존재가 노인 여성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Kohler, Behrman과 Skythet(2005)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자녀수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자녀수가 1명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였지만 자녀수가 2명 이상일 경우 삶의 만족도가 낮아졌다고 하였다. 유성호(1997)는 여성 노인들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배우자와 사별한 남성노인의 경우 자녀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개인의 자녀출산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을 살펴봄과 함께 최근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도 파악하고자 한다. 즉, 가까운 미래에 부모가 될 여대생들이 우리 사회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향후 저출산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우리나라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 경제적 요인과 관련되어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어려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고용불안, 여성의 경제활동 증대,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통계청, 2007) 고용이 안정될 때까지 가족구성을 연기하려하고, 출산을 하더라도 직장, 양육, 가사 등의 병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적은 수의 자녀만을 출산하거나 직장을 다니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최숙희, 김정우, 2005).

또한 200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저조하면서도 출산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은 높은 교육비 부담이 자녀출산을 꺼리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5~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젊은 연령층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출산의향 자녀수를 알아보겠다. 또한 출산의향 자녀수와 개인의 심리적 요인간의 관련성을 밝혀서 저출산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심리적 요인 중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관계, 우울, 불안, 외로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여대생들이 저출산의 원인 및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파악하여, 향후 저출산 관련정책을 수립하는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고자 한다.

여대생의 출산의향 자녀수가 2명일 경우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게 되나 1명이나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는 경우 저출산 현상이 심각해질 것이다. 1자녀 출산의향 집단과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는 집단 모두 저출산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나 출산의향 자체에는 차이가 있다. 즉 무자녀 출산의향 집단은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 자체가 없으나 1자녀 출산의향 집단은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고 미래 상황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무자녀 출산의향 집단과 1자녀 출산의향 집단을 구분하여 자녀출산 의향과 관련하여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 중 어떠한 측면이 아예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거나 1명의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라는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여대생의 출산의향 자녀수는 어떠한가?
- 2) 여대생의 저출산 의향 여부에 따라 심리적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가?
- 3) 여대생의 저출산 의향 여부에 따라 부모와의 애착유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4) 여대생의 저출산 의향 여부와 심리적 변인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 5) 여대생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방 법

연구대상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4년제 대학 3곳

에 재학중인 여학생 2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학생의 연령범위는 만 17~27세였다.

측정 도구

구조화된 질문지

여대생의 출산관련 의식과 저출산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출산관련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내용에는 성별, 연령, 본인의 가족관계와 같은 인구학적 특성, 자녀출산계획 수, 사회적 저출산 경향에 대한 원인 및 대책, 형제 및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5점 리커트식 척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부모와의 애착

여대생의 부모와의 애착유형을 평가하기 위하여 Griffin과 Bartholomew(1994)가 만든 대인관계질문지(Relationship Style of Questionnaire: RSQ)를 이용하였다. 대인관계 질문지는 총 30문항으로,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를 ‘전혀 아니다’에서 ‘아주 그렇다’까지 5점 척도에 평정하게 하여, 성인의 애착유형을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애착유형은 안정형,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의 총 4유형으로 분류된다. 이귀선과 정남운(2003)이 보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들이 보고한 내적 일관성(α)은 .75였고, 안정형, 거부형, 몰입형, 두려움형 각각의 내적 일관성(α)은 .58, .62, .51, .76이었다.

삶에 대한 만족도

여대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Diener과 동료(1985)들이 개발한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조명

한과 차경호(1998)가 한국판으로 수정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5문항으로 '매우 그렇다'부터 '전혀 아니다'까지의 7점 척도로 되어 있다. 본 도구의 내적신뢰도인 Cronbach' α 는 .77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여대생의 자아존중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전병제(1974)가 번역한 자아존중감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개 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대단히 그렇다'의 4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신뢰도인 Cronbach' α 는 .92로 나타났다.

우울

여대생의 우울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한국판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총 2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4점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더욱 우울함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신뢰도인 Cronbach' α 는 .89로 나타났다.

불안

여대생의 불안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Spielberger와 동료(1970)들이 개발하고 김정택과 신동균(1978)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특질불안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State)를 사용한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신뢰도인 Cronbach' α 는 .89로 나타났다.

외로움

여대생의 외로움을 평가하기 위하여 Russell (1980, 1982)이 개발하고 김교헌과 김지환(1989)이 번안한 UCLA외로움 척도(UCLA Loneliness Scale)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전혀 느끼지 않음'부터 '자주 느낌'까지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외로움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내적신뢰도인 Cronbach' α 는 .84로 나타났다.

절차

서울과 경기도의 4년제 대학 3곳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하여, 각 학교의 수업시간에 검사를 배포하였으며 일주일 후에 회수하였다.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 WIN 10.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첫째, 여대생의 출산 의향 자녀수 및 저출산 경향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여대생의 자신의 자녀에 대한 저출산 의향 여부(무자녀 혹은 1자녀 출산의향이 있는 저출산 의향 집단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는 집단간 비교)에 따라 여대생 자신의 가족관계, 심리특성 및 정신건강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여대생의 저출산 의향 여부에 따라 여대생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유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여대생의 저출산 의향과 심리적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의향 여대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변인(가족관계, 심리특성, 정신건강)이 출산계획(무자녀/1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여대생의 출산의향 자녀수

여대생의 출산의향 자녀수를 살펴본 결과 무자녀가 5.9%, 1명이 8.4%, 2명이 57.3%, 3명 이상이 27.6%로 나타났다. 따라서 무자녀나 1명의 자녀만을 출산할 의향이 있다와 같은 저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은 총 14.3%로 볼 수 있다.

여대생의 저출산 의향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

여대생의 자녀출산 의향 여부에 따라 심리적 요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분석에 앞서 저출산 의향 집단과 다출산 의향 집단의 사례수를 동일하게 설정하

표 1. 여대생의 출산의향 자녀수 (N=286)

구 분	빈도(%)
무자녀	17(5.9)
1명	24(8.4)
2명	164(57.3)
3명 이상	79(27.6)
계	286(100)

기 위하여 무자녀나 1명 출산과 같은 저출산 의향 여대생의 사례수인 41명에 맞추어 2명 이상 출산 의향 여대생의 사례수 245명 중 41명을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하여 집단비교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형제와의 관계 만족도($t=-2.75, p<.01$),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t=-3.05, p<.01$), 삶에 대한 만족도($t=-3.25, p<.001$), 불안($t=2.93, p<.01$), 우울($t=2.01, p<.05$), 및 외로움($t=2.57, p<.05$) 변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표 2).

이는 무자녀나 1명 출산의 저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은 2명 이상의 다출산 의

표 2. 저출산 의향(무자녀나 1명 출산) 여부에 따른 심리적 변인의 차이검증

	저출산 의향 (n=41) M(SD)	다출산 의향 (n=41) M(SD)	t
형제와 관계만족도	3.49(1.19)	3.99(1.06)	-2.75**
어머니와 관계만족도	3.80(1.23)	4.30(0.92)	-3.05**
삶에 대한 만족도	16.92(5.83)	20.19(5.97)	-3.25***
자존감	26.94(6.21)	28.21(4.47)	-1.59
불안	50.39(9.44)	46.09(8.57)	2.93**
우울	12.22(7.47)	9.96(6.54)	2.01*
외로움	41.69(11.37)	37.18(10.23)	2.57*

* $p<.05$, ** $p<.01$, *** $p<.001$

표 3. 저출산 의향(무자녀나 1명 출산) 여부에 따른 부모와의 애착유형 차이검증

	저출산 의향 (n=41) 빈도(%)	다출산 의향 (n=41) 빈도(%)	전체 (n=82)	χ^2
안정애착	16(34.0)	31(66.0)	47(100)	11.22***
불안정애착 (거부형, 의존형, 두려움형)	25(71.4)	10(28.6)	35(100)	
전체	41(57.3)	41(42.7)	82(100)	

*** $p < .001$

향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에 비해 형제를 비롯하여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건강 측면에서도 무자녀나 1자녀 출산의향을 가진 여대생이 2자녀 이상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대생에 비해 더 불안하고 우울하며,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산 의향 여부에 따라 여대생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유형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chi^2=11.22, df=1, p<.001$), 그 결과는 표 3에 기술하였다.

자녀를 낳지 않거나 1명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저출산 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은 부모와 불안정 애착이 71.4%, 안정애착이 34%로 나타난 반면,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여대생은 부모와 안정애착이 66%, 불안정 애착이 28.6%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 의향을 세우고 있는 여대생은 2명 이상의 다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여대생에 비해 부모와 거부, 의존, 두려움 등의 불안정 애착을 더 많이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대생의 저출산 의향과 심리적 변인의 관계

여대생의 저출산 의향과 심리적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여대생의 출산의향 자녀수와 형제와의 관계 만족도,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삶에 대한 만족도, 자존감, 불안, 우울, 외로움간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표 4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여대생이 다출산을 계획하고 있을수록 형제($r=.16, p<.001$)와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r=.18, p<.001$)가 더 좋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더 높았으며($r=.19, p<.001$), 불안($r=-.12, p<.05$), 우울($r=-.17, p<.01$), 외로움($r=-.15, p<.05$)과 같은 정신적 고통도 덜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의향 여대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변인이 자녀출산계획(무자녀/1자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2LL값은 108.21, χ^2 값은 20.12($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므로 적합한 모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측값과 관측값의 결과를 예측하는 확률인 예측률

표 4. 여대생의 저출산 의향(무자녀나 1명 출산)과 심리적 변인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1								
2	.16***	1							
3	.18***	.29***	1						
4	.19***	.27***	.37***	1					
5	.09	.23***	.29***	.56***	1				
6	-.12*	-.21**	-.21***	-.45***	-.63***	1			
7	-.17**	-.21***	-.29***	-.59***	-.73***	.67***	1		
8	-.15*	.16**	-.30***	-.40***	-.58***	.57***	.60***	1	
9	-.02	-.05	.03	.05	.03	-.02	-.02	-.04	1

* $p < .05$, ** $p < .01$, *** $p < .001$

1. 저출산 의향(저출산=0, 다출산=1, dummy coding), 가족관계(2. 형제에 대한 관계 만족도; 3. 어머니와의 관계 만족도), 심리적 특성(4. 삶에 대한 만족도; 5. 자존감, 6. 불안; 7. 우울; 8. 외로움), 9. 어머니와의 애착(안정 애착=0, 불안정 애착=1, dummy coding)

표 5. 심리적 변인이 저출산 의향 여대생의 출산의향(무자녀/1자녀)에 미치는 영향

변인	χ^2	-2LL	예측률	B	Wald	EXP(β)
<u>가족관계</u>						
형제와 관계만족도				.36	2.28	1.43
어머니와 관계만족도				.54	4.98*	1.71
<u>심리특성</u>						
삶에 대한 만족도	20.12**	108.21	94.7	.04	.31	1.03
<u>정신건강</u>						
불안				-.04	.57	.97
우울				.02	.26	1.02
외로움				-.03	.80	.98
상수				1.26	.20	3.52

* $p < .05$

도 94.7%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저출산 의향 여대생의 심리적 변인 중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변인이 출산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d=4.98,

$p < .05$). 또한 심리적 변인 각각이 1단위 변화함에 따라 출산계획(무자녀/1자녀) 확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EXP(β)값의 경우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가 1.71로 가장 높은 증가율

을 보였다. 이는 다른 변인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어머니와 관계 만족도가 1단위 증가하면 1자녀라도 출산을 계획하는 확률이 무자녀 출산계획 확률보다 1.17배 증가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저출산 의향 여대생 중에서도 1자녀라도 출산을 계획하게 하는 결정에는 여대생의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여대생의 저출산 현상에 대한 인식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여대생은 사회적인 저출산 현상은 자녀 양육비용의 부담감(47.2%) 때문이라고 가장 많이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인의 취업과 자기발전(11.5%), 여성의 출산 및 육아담당 책임에 대한 부담감(9.1%),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증대 및 지위향상(6.6%), 자녀에 대

한 가치관 변화(6.3%) 등의 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적인 저출산 현상은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더불어 여성이 출산과 육아담당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부담감, 그리고 여성 자신의 지위향상에 따른 사회경제활동 참여 증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사회적인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녀 1인당 고정액수의 현금지원(19.9%)이 가장 필요하며, 저렴한 보육시설 서비스의 확대(15.7%), 기업체의 육아휴직 등 기업의 협조(14.3%),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의 경제적 지원과 육아를 위한 보육시설 서비스 확대가 가장 중요하며, 기업체 또한 여성의 자녀육아와 관련된

표 6. 여대생이 생각하는 저출산 원인에 대한 빈도분석 (N=286)

저출산 원인	빈 도(%)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감	135(47.2)
취업과 자기발전	33(11.5)
여성의 출산 및 육아담당 책임에 대한 부담감	26(9.1)
여성의 지위향상에 따른 사회경제활동 참여증대	19(6.6)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	18(6.3)
자녀의 질에 대한 선호 증가	14(4.9)
결혼기피에 의한 미혼율 증대	14(4.9)
취업 및 직업 불안정성	11(3.8)
미래의 경제생활의 불확실감	8(2.8)
자녀양육시설 부족	6(2.1)
기타	2(0.7)
전체	286(100)

표 7. 여대생이 생각하는 저출산 경향에 대한 대책

(N=286)

저출산 대책	빈도(%)
자녀 1인당 고정액수의 현금지원	57(19.9)
저렴한 보육시설 서비스 확대	45(15.7)
기업체의 육아휴직 등 기업의 협조	41(14.3)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	40(14.0)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 위한 교육정책	37(12.9)
자녀 양육은 가족과 사회 공동책임이라는 인식 확산	34(11.9)
우대정책(자녀있는 가정 소득공제 등)	32(11.2)
전체	286(100)

협조를 제공하는 등 전반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논 의

우리나라의 최근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그 대책을 찾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시급한 과제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경제적 요인에 주목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출산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사회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적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출산과 관련된 개인의 심리적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미비하여, 어떤 변인을 선정하는가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요인으로 어머니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삶의 만족도와 정신건강(우울, 불안, 외로움, 자존감)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5~10

년 이내에 가임기에 들어서는 예비 부모세대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출산의향 자녀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출산의향 자녀수와 개인의 심리적 요인간의 관련성을 밝혀서 저출산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여대생이 저출산 현상의 원인과 그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첫째, 여대생의 출산의향 자녀수는 평균 2.06명(0명 5.9%, 1명 8.4%, 2명 57.3%, 3명 이상 27.6%)으로 인구대체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의향 자녀수는 개념적이어서 추후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향후 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 양육할 예비 부모세대인 여대생들이 평균 2명 가량의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다는 결과는 희망적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과 관련되어 이들의 심리적 특성과 요구를 이해하여 정책에 반영한다면 향후 출산율 증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여대생의 출산의향 자녀수는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 형제와의 관계 만족도가 높고, 현재 삶

의 만족도가 높고, 긍정적 정신건강 상태를 유지할수록(불안, 우울, 외로움이 낮을수록) 출산하길 희망하는 자녀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이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하고 자신의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 자녀수가 높아진다는 조운정(2006)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청소년도 부모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출산의향 자녀수가 많아진다는 연구결과(이삼식 등, 2006)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을수록 더 많은 수의 자녀를 출산한다는 Debra(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도를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도뿐만 아니라 어머니와의 애착을 유형별로 분석하여 애착유형과 출산의향 자녀수와의 관련성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심리적 요인 중 자존감은 출산의향 자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았다. 이 결과는 자존감이 자녀를 출산하려는 동기를 잘 예측한다는 선행연구결과(Gerson, 1986)와 상반되므로, 추후 연구에서 다시 재고해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셋째, 저출산 의향(무자녀 혹은 1명 자녀 출산의향) 여부에 따른 여대생 자신의 부모와의 애착유형을 살펴본 결과, 저출산 의향(무자녀 혹은 1명 자녀 출산의향)을 가지고 있는 여대생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있는 여대생에 비해 부모와 불안정 애착을 더 많이 맺고 있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여성은 모성 본능, 양육 욕구라는 종 특유의 본성이 있어 출산하려 하고, 자연 선택에 의해 살아남는 자녀의 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자녀를 몇 명을 낳을지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Foster, 2000). 하지만 이전과 달리 인간이 출산 자녀수나 자녀를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하

기도 한다. 이처럼 인간만이 출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종이며, 이런 의사결정에는 자녀에 대한 가치 등과 같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Foster, 2000). 출산 의향 여부에 따른 심리적 특성을 살펴본 연구결과, 출산 의향이 없는 대학생은 출산 의향이 있는 대학생보다 이성친구와의 관계 만족도가 더 낮았고, 돌봄 욕구가 더 적었다(Lampman & Dowling-Guyer, 1995). 이러한 결과들은 애착이론에 근거해 설명될 수 있다. 즉,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 경험이 좋을수록 건강한 정신건강 상태를 지니며, 긍정적인 대인관계 신념을 갖게 하여 성인기 대인관계가 원만하며, 자녀관계를 긍정적으로 예측하게 하고, 자신의 자녀출산 의향 및 출산의향 자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저출산 의향(무자녀 혹은 1명 자녀 출산 의향)을 지닌 여대생의 심리적 변인 중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 요인이 출산 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심리적 요인(삶의 만족도, 우울, 불안, 외로움)보다 어머니와의 관계만족도가 출산 의향 자녀수를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국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발달하고 인구 수준을 현 상태로 유지 혹은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자녀들을 출산, 양육하고, 심리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해 나아가는데 있어서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저출산 현상의 원인에 대한 여대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자녀 양육 비용의 부담(47.2%) > 취업과 자기 발전(11.5%) > 여성의 출산 및 육아 담당 책임에 대한 부담감

(9.1%)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양육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과 더불어 여성 자신의 자아 실현과 자기 개발 욕구 증가 및 사회경제 활동 참여 증대 등 부모역할 측면에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을 저출산의 원인으로 보다 강하게 인식하였다.

또한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는 자녀 1인당 고정액수의 현금지원(19.9%) > 저렴한 보육시설의 확대(15.7%) > 기업체의 육아휴직 등 기업의 협조(14.3%) >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불평등 해소(14%) 순으로 나타나 자녀 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선호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점차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어려워지면서 자녀양육 비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결과와 안정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정신건강과 이후 자녀출산 의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출산율 증가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 경제적 지원에만 중점을 둔 정책을 고려하기 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정신건강 증진,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 재학중인 여대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다른 거주 지역, 교육사(학력)을 포함한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또한 무자녀와 1자녀출산의향을 보이는 여대생표집의 수를 늘려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향후 10년 이내에 가임기에 들어서지는 20대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횡단적 접근이나 연령 범위를 10대 청소년, 자녀출산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실제 출산이 이루어

지는 20~40대로 확대해 다른 연령의 집단에서도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자녀 출산의향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지를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종단적 접근을 통해 개인의 자녀출산 의향과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부모와의 애착에 대한 평가가 좀더 심도있게 평가되는 도구를 사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편, 본 연구는 자녀 출산의향과 개인의 심리적 요인간의 관련성을 살펴본 기초적 연구로 변인의 선정과 접근에 한계가 있다. 추후 출산의향과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에 관한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참고문헌

- 금효정, 금명자 (1995).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 및 노부모-성인자녀간 결속도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36-46.
- 김교현, 김지환 (1989). 한국판 UCLA고독척도.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집, 16, 13-30.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 69-75.
- 김수연, 이은경 (1996). 대학생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연구. 학생생활연구, 32(1), 74-93.
- 김승원 (2003). 한국사회에서의 저출산 원인과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택, 신동균 (1978). STAI의 한국표준화에 관한 연구. 최신의학, 21, 69-75.

- 권용은, 김희철 (2004). 자녀가치와 출산율. *아동교육*, 13(1),
- 송지은, Marke, & Nadine F. (2006). 성인자녀와의 관계가 부모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미국 종단자료의 분석. *한국노년학*, 26(3), 581-599.
- 안명옥 (2004). 저출산 사회 대책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한국모자보건학회*, 67-104.
- 유안진, 신양재 (1993). 대학생의 부모됨 동기와 부모역할개념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4), 141-155.
- 유안진, 이점숙, 정현심 (2006).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7(1), 167-181.
- 이귀선, 정남운 (2003).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15(4), 779-793.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삼식, 김태현, 박수미, 오영희, 박효정 (2006). 미래사회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연구. *저출산고령사회연구회·보건복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신인철, 조남훈 (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연구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유계숙, 박종서, 이성용, 조영태, 장보현 (2008). 최근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저출산고령사회연구회·보건복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영호 (2007). *정신건강론*. 학현사.
- 유영호 (1997). 자녀수와 결혼한 성인자녀와의 동거가 노후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성별과 결혼 상태에 따른 분석. *한국노년학*, 17(2), 37~50.
- 전광희 (2002). 한국의 저출산: 추이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13, 305-324.
- 전병제 (1974). 자아개념 측정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1), 107-130.
- 조윤정 (2006). 여대생의 결혼과 출산의식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차경호 (2001). 대학생들의 성격특성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상담연구*, 9, 7-26.
- 최숙희, 김정우 (2005). 외환위기 이후 저출산의 원인 분석. *삼성경제연구소 연구보고서*.
- 통계청 (2007). <http://www.nso.go.kr>.
- 통계청 (2008). <http://www.nso.go.kr>.
- Andersson, G. (2002). Fertility development in Norway and Swenden since the early 1960s'. *Demographic Research*, 6(4), 67-86.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s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 16(5), 427-454.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Vol.II.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New York: Basic Book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Debra, M. (2006). Voluntarily Childfree Women: Experiences and Counseling Considerations.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28(3), 269-284.
- Diener, E.(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 Research*, 31, 103-157.
-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NY: Norton.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y Bulletin*, 20, 503-513.
- Feeney, B. C., & Collins, N. C. (2001). Predictors of caregiving in adult intimate relationships: An attachment 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6), 972-994.
- Foster, C. (2000). The limits to low fertility : A biosocial approach.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2), 209-234.
- Gauthier, A. H. (1996). *The State and the Family: A Comparative Analysis of Family Policies in Industrialized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Gerson, M. J. (1986). The prospect of parenthood for women and 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0(1), 49-62.
- Glenn, N., & McLanahan, (1981). The effects of Offspring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Adul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409-421.
- Griffin, D.. W., & Bartholomew, K. (1994). The metaphysics of measurement: The case of adult attachment. In K. Bartholomew & D. Perlman(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 5. Attachment processes in adulthood*(pp. 17-52). London: Jessica Kingsley.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Kohler, H. P., Behrman, J. R., & Skytte, A. (2005). Partner+Children=Happiness? the effects of partnerships and fertility on well-being. *Population & Development Review*, 31(3), 407-445.
- Lampman, C., & S, Dowling-Guyler. (1995). Attitudes toward voluntary and involuntary childlessness, *Basic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7(1/2), 213-222.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 66-106.
- Mickelson, K. D., Kessler, R. C., & Shaver, P. 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92-1106.
- OECD, OECD FACTBOOK 2005, France: OECD, 2005.
- Roberts, J. E., Gotlib, I. H., Kassel, J. D. (1996). Adult attachment security and symptoms of depression: the modiating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310-320.
- Rosenstein, D. S., & Horowitz, H. A. (1996). Adolescent attachment and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4(2), 244-253.
-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facts in the popular pres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21), 535-574.
- 1 차원고접수 : 2009. 2. 16.
 심사통과접수 : 2009. 3. 6.
 최종원고접수 : 2009. 3. 19.

A Study on psychological variables related to low fertility

Kyung Sook Lee¹⁾ Suk Jin Jung²⁾ Jin Ah Park²⁾ Yee Jin Shin³⁾

¹⁾Dept. of Rehabilitation Hanshin University

²⁾Sewon infant-child development center

³⁾Yonsei university of medicine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relation between personal psychological variables and the number of intention childbirth possibility. The targets are 286 women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 shows that university students are willing to have more children as their satisfactory level for their present life is high, anxiety and loneliness degree are low, and as they are content with their relationship with mothers. It can be concluded that university students expect positive parent-child relationship as their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has been good and mental health status is stable, thus leads to have positive effect in the number of intention childbirth possibility and recommended number of childbirth.

Key words : low fertility, Korean women university student, the number of intention childbirth possibility, psychological variables, voluntary childlessness planning